

金澤榮의 『新高麗史』에 대한 一考

이점주

인문대학 역사문화학과

I. 머리말

한국의 근대역사학은 이른바 애국계몽기로부터 일제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전통사학에서의 탈피를 모색하는 노력을 거치면서 근대 역사학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개혁기에 활동하던 대표적 歷史家의 한사람으로 滄江 金澤榮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택영은 문장가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역사 서술은 종래 역사교과서 편찬과 『歷史輯略』의 찬술 등이 주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그의 역사활동의 일부일 뿐이며, 국권이 일제에 강탈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망명한 뒤, 1927년 死去時 까지 중국에서 더 많은 역사 서술과 편찬에 힘을 쏟았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韓史纂』 등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滄江의 역사인식에 대한 구체적 고찰이 진행됨으로써, 그의 역사 편찬활동과 그 성격까지 종합적인 이해에 접근하게 되었다.¹⁾ 그런데 김택영의 중국망명이후 저술 10여 종 가운데 문집류가 아닌 우리 나라 역사서술로는 『韓史纂』이 집중적으로 검토된 반면,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1924년 간행의 『新高麗史』는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 그것은 첫째 김택영이 이미 『韓史纂』에서 鄭麟趾撰 『高麗史』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고려사 편찬에 대

1) 특히 중국 망명이후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한 논고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鄭灌 : 滄江 金澤榮의 史學思想, 『嶠南史學』, 창간호, 嶺南大, 1985
金項旣 : 滄江 金澤榮의 歷史敘述, 『제주대학교 논문집』 (인문편)20, 1985
崔惠珠 : 『滄江 金澤榮의 韓國史論』, 한울, 1996

해 언급하였기 때문에 그의 고려사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新高麗史』는 『高麗史』를 개편한 것으로 보아, 본질적인 새로운 편찬으로서의 사료적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됨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新高麗史』의 판본이 1924년(中華民國13년), 中國南通의 翰墨林書局에서 간행된 다음, 다시 增刊되지 않았던 만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이제 『新高麗史』의 全貌를 살펴보는 것은 개혁기 역사가로서의 한계성도 指摘이 되고 있는 창강 김택영의 역사인식에 있어 구체적으로 고려사 인식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史實 내용서술의 구체적 비교관찰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신고려사』의 소개에 주안을 두고, 그 과정에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는 범위 안에서만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³⁾

II. 『신고려사』 편찬의 방향과 그 체제

『신고려사』는 김택영이 편수하고 그와 孫鳳祥·金謹鏞·孔聖學·金相宇·朴在善 등이 參諄 및 監刊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

- 2) 필자는 蔚山市의 한 古家에서 개인소장이었던 “新高麗史”를 발견한 이후, 현재까지 國史編纂委員會 所藏의 완결본 1부, 국립중앙도서관의 2부, 그리고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의 零本 8권 2책(本紀부분)을 확인하였다. 울산발견본은 현재 울산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 3) 본고는 원래 『신고려사』에 대한 소개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나, 주1)의 논구에서 김택영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에 대한 고찰이 있었고, 최근 중국 연변대학교 이용식의 ‘김택영의 『신고려사』에 대한 일고찰’이 계명사학 11에 발표되기도 하여, 가능한 증복을 피해 침묵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 4) 손봉상과 공성학은 각각 1, 2대 개성인삼조합장을 지낸 인물로서 당시 개성 지식인 사회의 대표적 존재였다고 하며, 이들은 동향출신으로 김택영을 돕고, 문하생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봉학 : 1993, 『朝鮮後期 開城知識人의 동향과 북학사상 수용』, 『규장각』 16, p.97참조.

『신고려사』의 체제는 정인지 撰으로 되어있는 『고려사』, (이하 편의적으로 『고려사』, 또는 鄭史라고 칭함)와 같이 전통적 紀傳體 형식의 總 53권 14책으로 되어있고, 漢文으로 記述하였다.

첫 번째 1책은 目錄인데 翰墨林書局의 설립자로 알려진 張謇의 題字로 안표지를 하고 김택영이 쓴 것으로 보이는 序 및 附說, 편찬 방침에 대한 雜綴 7個條, 그리고 제1권부터 제53권까지의 目錄이 기재되어 있다. 제1권에서 제11권까지는 本紀로 太祖에서 恭讓王에 이르는 각 王代의 史實을 기술하였고,⁵⁾ 제12권에서 제28권까지는 志로서, 天文志로부터 曆·五行·地理·禮·樂·輿服·選舉·百官·食貨·兵·刑·釋志등으로 『고려사』의 志와는 석지가 새롭게 설정된것과 순서의 차이가 있는 외에는 같이 분류되어 있다.⁶⁾

다음 제29권은 年表이고, 제30권 이하는 列傳인데, 제30권의 后妃, 제31권의 宗室열전은 기재대상이 『고려사』의 當該列傳과 같게 되어있으나, 제32권부터 제52권에 이르는 열전의 분류와 기재인물은 『고려사』와는 일치하지 않는 독자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32권에 洪儒, 裴玄慶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제41권 끝에 鄭夢周에 이르기까지 212명을 실고, 제42권 이후로 良吏열전, 儒學열전, 文藝·忠義·遺民·孝友·隱逸·烈女·方技·宦者·酷吏·벽행·姦臣·叛逆열전 등으로 나누어 174+72명을 실고 있다. 마지막 제53권은 隣國열전이라고 하여 日本을 소개하고 있으니 日本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책 끝에 金謹鏞과 朴在善, 각각의 跋文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신고려사』 편찬의 배경, 목적이나 방향 등은 그 서문이나 잡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택영은 서문에서 『고려사』를

5) 제1권 太祖, 제2권 惠宗~穆宗의 6代, 제3권 顯宗·德宗, 제4권 靖宗~獻宗의 5代, 제5권 肅宗~仁宗의 3代, 제6권 毅宗~康宗의 5代, 제7권 高宗·元宗 제8권 忠烈·忠宣王, 제9권 忠肅~恭愍王의 5代 각 왕대의 사실을 기술하였고, 제10권에서는 9권에 이어 恭愍王과 廢王, 제11권은 廢王과 後廢王 및 공양왕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6) 志 가운데 地理志가 제15권에서 제17권에 걸쳐 기술되었고, 禮志가 제18, 19권 兩券으로 되어 있다.

비판하면서 『신고려사』 편찬의 필요성 내지 경과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으니, 『고려사』는 非史로 우선 정인지가 史官의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내용에 있어서도 諱親밖에도 鄙陋, 荒謬된 잘못이 많아 오랫동안 개탄해 왔다고 하면서,

徐氏(巨正)의 東國通鑑을 인용해 그 소략함을 고치고, 公梁, 穀梁, 春秋의 義를 끌어 그 가려 피한 것을 통하게 하였다. 釋志와 儒學·文苑·隱逸·遺民·隣國 등의 열전을 넣어, 그 빠진 것을 보한 뒤에 歐陽氏의 新唐書의 古例를 따라 (신고려사로) 이름지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⁷⁾

이어 序의 附說에서 김택영은 『고려사』에 대하여 잘못된 것으로 보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辛王의 案이 그릇되었고, 그 記事之法이 『三國史記』나 『東國通鑑』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本紀·諸志가 대단히 거칠고 졸렬한 채로 다듬어지지 않아 제대로 서술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列傳에서의 人物評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들어내는 등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잘못되어 자신이 그 일부라도 追救하고자 한다는 것이다.⁸⁾

7) 新高麗史 序

鄭麟趾之高麗史 君子謂之非史 何也 夫人能正其身 然後 乃能正人之不正 如麟趾者 以韓 端宗之大臣 叛附 世祖 首建殺端宗之議 此其餘狗彘之所不食也 況其史於諱親之外 又多有卑陋荒謬之失者乎 余私慨於斯者 四五十年于茲矣 (中略) 引徐氏東國通鑑之文 以救其疎 引公羊穀梁春秋之義 以通其諱 加入釋志儒學文苑隱逸遺民隣國等傳 以苴其漏 然後取歐陽氏新唐書之古例 以名之 (後略)

崔惠珠 전게서. p.140~141 참조.

8) 同 附說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以本紀言之 如高宗三年 契丹之難 但書小捷 而不書金就礪之大捷 十八年 蒙古之難 但書龜州被圍 而不顯出朴樞之名 [中略] 夫人國一代之事何如 其重且大而荒亂如此 曷不痛哉 是以不肖思欲追救其萬一 而爲今日之修 然馬齒已頽 精力不隨 苟後之君子 鑑此情實 將已修而復加修焉 其爲幸當何如也哉

라 하여 글안·몽고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과 관련된 고려사 기사를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고려사』는 辛壬의 案, 즉 禡壬 昌壬의 王系문제를 비롯하여 잘못되고 어긋나며 疎漏함이 많은 非史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修正改撰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어 雜綴에서 7個條에 걸쳐 편찬의 방침을 밝힌바, 앞의 2개조는 本紀와 史贊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1. 本紀는 簡嚴典重해야 하는 고로 史記에서도 세세한 부분은 쓰지 않는 예가 있는데 鄭史는 법도가 태무하여 쓸데없는 세세한 일까지 실지 많음이 없으며, 연속해 成文이 되지 않고 편편히 分段되니 고금의 역사에 이와 같은 것이 어찌 있겠는가. 이제 本紀의 서술은 대개 歐陽修의 新唐書를 따라 간략히 한다. 그러나 차마 全史를 다 抹殺할 수는 없어서 唐書에 비하면 좀 번잡하다.

1. 史贊은 司馬遷의 史記열전에서 시작되었으니, 인물을 峻選한 고로 사람마다 사찬을 달 수 있었던 것이다. 열전을 고쳤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삼국사기』의 贊例에 따른다.

다음 2개조는 高官稱號의 濫稱을 고쳐 표기한 것과 勳爵, 文武階의 始終을 기록한 것이다.

1. 고려의 平章사는 정二품인데 고려사에서는 宰相이라고 하였지만 宰臣으로 바꾼다.

1. 勳爵 文武階는 고려사의 경우 百官志 끝에 붙였으나 나는 이를 떼고 歐陽修(신당서)의 예를 따른다. 그러나 전부 버리기는 아까워서 左에 列記한다.

라는 설명에 이어 훈작과 문무계를 初期 정비과정에서부터 改正된 것들을 길게 열거하여 놓았다. 이후의 3개조는 모두 열전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밝혔다.

1. 鄭史에서는 鼎革時의 改節者를 立傳하였는데 개절한 사람은 敘述할 일이 있는 경우에 本紀나 타인의 傳에 붙이면 족하다. 무슨 면목으로 高麗名臣의 반열에 들 것인가. 이에 개절자 가운데 더욱 나쁜자는 골라서 叛逆傳에 넣고 그 나머지는 모두 베어내어 뒷날의 撰史에 맡긴다.

1. 『고려사』 열전에는 高兆基의 예같이 한편중에 是非표편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가.

1. 自古로 열전은 반드시 德行·才智·功名·事業之人을 취해야 하나 鄭史는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고관 대작자를 열전에 많이 넣었다. 蕪濫하여 내가 이를 많이 삭제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서로 그 비중이나 격이 균형을 잘 이루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게 여겨지는 점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歐陽修의 新唐書와 三國史記에 따라서, 本紀는 간엄하게 기술하고 史贊은 삼국사기를 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열전은 고려중심의 관점에서 재분류, 재선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신고려사』의 고려사 인식

『신고려사』는 김택영이 새로운 史料를 수집해서 독자적으로 새로 편찬한 것이 아니라, 정인지 『고려사』에 대한 불만으로 고려사를 고려국가의 기준에서 수정 보충하려는 改修의 성격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서술형식이나 내용의 많은 부분이 『고려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고려사』의 성격, 또는 고려사 인식에 대하여 이해하자면, 『고려사』와 다르게 된 부분, 차이나는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한 첩경이 되리라고 생각

된다.

먼저 『신고려사』는 年代記 부분을 『고려사』의 世家로부터 本紀로 고쳐 놓았다. 흔히 제후국이 아닌 대등한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러한 면은 年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연표는 먼저 작은 글자로 干支를 표시하고 고려의 연대로 표시한 다음, 상대적으로 작은 글자로 중국의 연대를 나타내고 있으니, 「戊寅, 太祖 天授元年, 後梁末帝貞明 四年」 식으로 고려의 연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⁹⁾

다음, 본기에서 『고려사』 世家가 그러하듯이 각 왕의 기사 끝에 史贊을 붙이고 있는데, 그 내용상 차이가 두드러지는 편은 아닌 듯 하다. 서문부분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었지만, 鄭史 世家의 경우 恭愍王 다음에 恭讓王으로 편차하고 열전 끝 부분에 辛禡, 昌 열전으로 처리한데 반하여 이 책 본기에서는 廢王, 後廢王으로 표기하여 공민왕 다음에 제대로 왕의 年代記로 기술하였는데, 이 부분이 역사를 개찬한 핵심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김택영은 『고려사』의 辛王一案은 잘못된 것으로 廢王 禡는 辛禡가 아닌 공민왕의 아들 우로서 고려 왕위를 정당하게 계승하였음을 입증하면서 本紀에 위치하도록 조치한 것이다.¹⁰⁾

이러한 고려말기 역사에 대한 인식은 이미 성호 이익의 成敗論 이래, 『東史綱目』으로 이어진 實學 역사의식의 계승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¹⁾ 우왕, 창왕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고려사 개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열전의 구성이다.

구체적으로 열전으로 비교하여 보면, 『고려사』에서는 열전 권1(고려사

9) 『신고려사』, 권29, 표.

10) 상계서. 권10. 본기. 폐왕조

廢王名禡 小字牟尼奴 恭愍王之子 母曰 宮人韓氏 眞母曰辛屯婢龍氏 語在恭愍王本紀 恭愍十四年七月生 養於屯 二十年 七月 恭愍使察訪使林樸往水原 誅屯 樸至水原 使人詐報宣召 屯喜曰今日之召 蓋爲阿只思我也 阿只者方言小兒也 屯代養王子七年 故有此言也 樸既誅屯 歸謂士官閔由誼李至曰 誅辛屯 國家大慶 又有一大慶君等知之乎 上幸宮人生子 今已七歲 屯潛養之 不使國人知 是亦當誅 史官宜知之 是月恭愍納王于洪太后殿 二十二年七月 賜名封江寧院大君

11) 송찬식, 「성호의 새로운 사론」, 『한국의 역사 인식』, 下, 1976, p.372.

권38), 권2가 后妃열전이고, 권3·4가 宗室·公主열전인데, 『신고려사』는 앞에서 보았듯이 권30·31이 각각 后妃·宗室열전으로 되어 있고, 이하 『고려사』열전 제5에서 제33까지 총 515명의 열전이 실려 있는데 비하여 『신고려사』는 제32권부터 제41권까지 총 212명의 열전을 실었다.

다음 『고려사』 열전 제34(권121)과 『신고려사』 제42권은 모두 良吏열전으로 5명의 동일한 인물이 기술되어 있다. 『신고려사』 제43권과 제44권은 각각 儒學과 文藝열전으로, 『고려사』에는 설정되지 않은 분류로서, 유학열전에 崔冲으로부터 吉再에 이르는 8명과 문예열전에 朴寅亮으로부터 李寧까지 19명의 열전을 신고 있다.¹²⁾ 『신고려사』 제45권의 忠義열전은 『고려사』 열전 제34의 총의 6명에 河拱辰·金震陽·元天錫 등 7명을 추가하였고, 같은 제45권에 『고려사』에는 설정되지 않는 遺民열전을 두어 趙狷·金澍·金濟·車原頰의 4명과 太學生 72名 등 76명을 기술하여, 고려유민의식 발로의 한 징표로 파악되기도 한다. 孝友열전은 『고려사』와 별 차이가 나타나 보이지 않고, 인원수만 2명이 적은 15명일뿐이다. 같은 제46권에 『고려사』에 없는 隱逸열전이 설정되어 李資玄·韓惟漢의 2명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烈女열전은 『고려사』에 수록된 인물 가운데 江華三女를 빼 것 뿐이고, 方技열전에서는 李寧을 문예열전으로 옮겼으며, 宦者열전은 『고려사』의 14명을 9명으로 줄였고, 酷吏열전은 동일하다. 嬖行열전은 『고려사』에서 60명이었던 인원을 『신고려사』에서는 18명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신고려사』의 姦臣·逆臣열전은 『고려사』의 같은 열전과는 다른 입장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사』의 간신열전이 1·2로 나누어 총 26명인데, 비해 『신고려사』에서는 그 가운데 9명을 빼고 2명을 넣어 19명을 신고 있다.¹³⁾

12) 유학열전은 崔冲·俞升旦·安珣·禹倬·白頤正·崔文度·朴尙衷·吉再의 8명이 고, 문예열전은 朴寅亮·金黃元·高兆基·鄭知常·李奎報·李公老·李仁老·吳世才·趙通·朴椿·趙文拔·崔滋·陳濬·李藏用·金坵·崔澹·郭預·權漢功·李寧의 19명이 수록되어 있다.

13) 9명은 宋邦英·石冑·金元祥·權漢功·金元命·金鉉과 曹敏修·邊安烈·王安德

더욱 반역열전은 『고려사』가 1~5에 46명과 반역 6에 辛旽을 독립전으로 하여 모두 47명을 실고 있고, 『신고려사』는 제50~제52권의 3권에 신돈을 포함한 44명을 실고 있어 인원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셈이나, 수록 인물에 있어서, 특히 고려말의 인물선정에 있어서는 대조적이라고 할 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趙浚·鄭道傳·尹紹宗·南閔·南在·趙璞·吳思忠·裴克廉과 같은 인물들을 반역열전에 수록한 것이다.¹⁴⁾ 다시시디시피 이들은 禡王·昌王을 부정하고 조선의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로서, 고려국가를 정통으로 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反高麗의 一團인 반역자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서 살폈듯이 『고려사』에서 열전 제46~제50에 걸쳐 辛旽, 辛禡 및 昌열전을 설정하였으나, 『신고려사』에서는 本紀에 王統을 따라 기술하고 있다.¹⁵⁾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고려유민의식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附設이나 雜綴에서 표방한 역사인식과 연결하여 볼 때, 成敗論的인 해석을 비판하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인식하려 하였다는 면을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김택영은 중국으로의 망명이후, 그 生涯의 거의 끝 무렵, 老年에 『신고려사』를 편찬하였다. 그것은 『고려사』에 대한 불만, 비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전적으로 새로운 편찬이라기보다, 『고려사』의 修訂, 改撰의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신고려사』는 『고려사』에 비해 분량이 적고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고려국가를 기준으로 고려사를 이해하려는 점은 특색이라 하겠다. 여하튼 개찬의 핵심은

이고, 추가한 2명은 金存中·石天輔이다.

14) 그 밖에도 『신고려사』에도 趙位寵 등이 추가되어 있다.

15) 이는 이미 『東史綱目』에서 제16과 17에 前廢王禡, 後廢王昌으로 기술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자주독립국가적 용어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자존적 역사의식과 고려말기 공민왕 이후 그 자손의 왕위 계승에 관한, 이른바 廢假立眞論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건국의 정당화문제에 대한 비판과 수정에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禡王, 昌王을 列傳으로부터 本紀로 옮겨 공민왕의 다음 왕위를 계승한 廢王과 後廢王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려사』의 논리를 부정하였다. 또한 열전의 설정에서 고려국가의 역사라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분류설정과 특히 朝鮮開國功臣부류를 叛逆열전에 추가하여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개찬의 성격에 대하여 김택영이 開城出身인 점과 연관하여 개성출신 지식인층의 反朝鮮的, 고려유민의식의 발로로 파악되는 면과 實學사상의 계승적 차원에서¹⁶⁾ 客觀的 고려사 인식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점은 근대적 역사의식의 차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는 그의 역사인식의 한계와 無關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¹⁷⁾

16) 개성출신 지식층의 성향과 관련하여 유봉학, 「조선후기 개성지식인의 동향과 북학수용 -최한기와 김택영을 중심으로-」 奎章閣 16, 1993. 참조.

17) 이런 지적은 다음 참조. 鄭灌, 전계논문. p.473, p.479. 최혜주, 전계서.